

昭和八年八月四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한글

第九號



本號要目

硬音의 本質
 朴勝彬님의 主張은 果然
 從來 慣用에 가까운
 平易한 것인가?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되나

朝鮮語學會編輯

비 리

- ◇硬音의 本質.....金 善 琪...(349)
- ◇朴勝彬님의 主張은 果然 從來 慣用에 가까운 平易한것인가... 崔 鉉 培...(355)
-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李 克 魯...(364)
- 켓저글 (吊針文).....俞 氏...(370)
- 사투리 調査.....吳 世 濬...(371)
- 俗談語彙.....(369)
- 質疑問答.....(376)
- 本會 記事.....(377)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寫真版]

距今 四百八十六年前, 丙寅 九月二十九日(陽曆 換算則 十月二十九日)에 頒布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使用하는 世宗大王 御製 訓民正音은 우리 朝鮮사람이 가진 世上에 둘도 없는 寶物입니다. 世宗 때의 그 原本 四十餘頁이 나 되는 것을 寫真版으로 박어내어, 實費 二十錢(外郵稅 二錢)에 提供코져하오니, 이 千金難購의 重寶를 여러분의 案頭에 備置하기를 바라나이다.

松江歌辭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松江歌辭는 千古有名한 文章으로 누가읽든지 興味津津한것이외다. 그러나 珍貴한 古書가되어서, 그것을 어더 보기는 그러케 容易한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면 藏書家의 好意로 그 珍書를 어더서 縮刷해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올시다.

發賣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一七八

中央印書館

硬音의本質

金 善 琪

一. 먼저 할말

된소리들 어찌케 적어야 옳으나 하는綴字法問題에서 된소리의本質은 무엇이나 하는問題가 일어났다. 元來文字와聲音과는何等의必然的關係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된소리의本質을 밝힘으로文字規定에도 큰關係가 있다. 더욱 우리의文字組織과 그制作의原理가聲音에基礎하였으므로 그音의本質을闡明함은文字規定의規範的要求를 밝힘이 되고, 따라서實際問題의解決의참關鍵을 찾게 될 것이다.筆者가 된소리의本質을 밝히려는意圖도實로 여기에 있다. 或 어떤 분은 스스로言語研究를天職으로自任하면서,音聲事實을 어떤神秘한 일로 말하기도 한다. 마치形而上界의事實이나 되는듯이.

그러나音聲事實은 해빛과 같이 밝히自然科學의事實이다. 物理音響學과 생理解剖學의事實이다. 그러므로音의本質을 밝힘에는陰陽五行說로 아모리 그說明의妙理를 얻었다 하야도決局虛空을 침과 같고, 물거품을 침과 같을 것이다.

聲音事實은 어디까지든지物理音響學의生理解剖學의 또는聽覺心理學의說明으로야만 될 것이다.

最近에 와서는音聲의觀察도內容的主觀的觀察로 불어 점점實驗的客觀方法으로發展하여實驗音聲學(Die Experimentelle Phonetik)이란獨立한 한學問까지 생기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더욱 이學問의 힘으로聲音事實이說明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音聲을觀察함에當하여實驗室을 갖지 못한 것은 크게遺憾이다. 萬一音聲實驗研究室이 있었으면 우리의問題가 된「된소리의本質」도 좀 쉽게 밝혀질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施設이 없다. 그러나音聲은精巧한機械의 힘으로만觀察될點도 있지마는,細心の注意만 하면, 다른方法으로實驗하여참에 가까운事實의觀察도 할 수가 있다. 더욱이先進諸國에서實驗的方法에依하여인의 얻은結果가相當히 있으므로 이것을參考로 하면 커다란錯誤는 없을가 한다.

또聲音을觀察하는데音의精密한表記는正字法의(Orthography)字母로는到底히滿足할 수가 없다. 或 우리의字母에 여러가지符號를 주어서使用하시는 분도 계시나 나는國際音標文字를(International Phonetic Symbols) 쓰겠다. 이國際音標文字는特히語音研究에音을精細히表記할 目的으로 만든 것이다. 元來는英國의 Sweet氏와 Murray氏의 손으로 된 것인데,其後德國의 Vieter, 佛國의 Passy, 英國의 Tones 등의發音學者들의修正과改善을加하여國際音聲學會에서 이것을採用한以來 더욱完備하게 되어現在는人類의 어떠한微細한音聲이라도記寫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와서는語音을研究하는 사람은勿論이요, 一般外國語學習者에게는不可無의 것이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 6818073 普及되지 못하여, 多少間 不便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꼭 알아야 할 것이니까, 우리도 빨리 익혀야 될 것이다。國際音標文字의 原理와 그 運用에 關한 仔細한 說明은 다음 機會도 미룬다。音標文字는 꺾쇠괄호 () 로 날아내겠다。

註1. 國際音聲學會 (Association Phonétique Internationale)는 1886에 創設된 것이다.

二. 된소리의 本質

우리의 말소리에는 다섯 개의 된소리가 ^{註1}있으니, ㅃ ㅆ ㅈ ㅊ ㅅ 들이다。곳 빨래, ㅃㅃ, ㅆㅆ, ㅈㅈ, ㅊㅊ, ㅅㅅ 들의 첫소리다。

註1. 글자의 이름, ㅃ 된비음, ㅆ 된지음, ㅈ 된기역, ㅊ 된지읒, ㅅ 된시읏。

이 소리들이 어에서 어떻게 나는 소릴가 된소리에 對하여 朴勝彬氏는 平音보다 되인 音調로 나는 獨立한 發音이라, 또는 그 平音의 音質이 強하게 發音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로는 된소리의 本質은 秋毫도 밝혀진 것이 아니다。大體 우리의 聽覺影像에 Acoustic Image 되게 들리는 그 事實의 說明이 肝要한 것인데, 우에 說明으로는 「된소리는 되게나는 소리라」하는 말 밖에 아모 說明도 된 것이 없다。

또 小倉博士는 이 된소리의 說明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그 소리를 (된소리) 別 적에 ㅃ의 閉鎖狀態는 예사 ㅃ과 같으나, 그 閉鎖를 깨치는 瞬間은 普通 ㅃ보다 그 程度가 強하고 濃厚하게 蓄積된 氣流가 徐徐히 또 부드럽게 閉鎖를 깨치는 無聲音이다。

試驗삼아 바와 ㅃㅃ을 比較하여 보면, 前者는 p의 音이 힘차게 破裂된 다음에 a母音이 繼續하고, 後者는 氣勢가 弱해진 p가 破裂하여 然後에 母音이 繼續한다。그래서 後者의 p는 前者의 p보다 얼마쯤 다음에 오는 母音에 同化되기 쉬운 狀態다。이 ㅃ이 종종 有聲으로 들림은 이 까닭이다。日本 及 西洋學者가 이 音에 對하여 pp, b, tb 등의 文字를 使用함도 이 音의 性質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發音概說 80頁) 小倉氏는 追後에 된소리에 對하여 「된시읏에 就하여」란 小論을 썼다。이 小論은 우의 말보다는 좀 仔細하였으나 된소리의 Kymograph 試驗한 結果 그리 좋은 成果는 얻지 못하여 別 發展을 보지 못하였고, 뒤에 그의 見解가 또 좀 바뀌었다 하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 그의 具體的 發表를 보지 못하였다。

以上の 說明에서 보면, 된소리는 1)無聲音이라 한 것과 2)氣流의 더져나오는 힘이 平音보다 弱하다는 것과 3)破裂의 바로 진 瞬間에 있어, 그 閉鎖의 程度가 좀 強하다는 세가지 事實을 說明하였다。그러나 이 說明만으로는 甚히 不充分하다。無聲音이면 어찌 하나까 無聲이란 것과 萬一 閉鎖를 깨치 숨의 힘이 弱해 졌다면 왜 弱해진 까닭을 말하여야 할 것이다。또 閉鎖의 程度가 強한 것이 이 된소리의 本質的 關係가 있음을 說明을 하여야 될 것이다。實로 氏의 說明만으로는 隔靴搔痒의 感이 없지 않다。

된소리 子音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勿論 그 소리의 數次와 또는 調音威의 關係는 各各 異할 것이나 다른 나라 말에도 相當히 있다。가까이 中語에도 있고, 歐羅巴에서 Romance系의 말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말과 남쪽 토이취 말과 슬라브 말에 있다。이 밖의 말에도 獨立한 素音 Phone으로 存在하지는 아닐지라도 連音 關係로 나

그런데 나의 觀察에 依하면 이 된소리는 決코 喉頭破裂 作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勿論 된소리의 제바탕을 이루는 作用은 이에 있다 할 것이나, 喉頭破裂 作用이 있을 적에는 發音하는 全體的 狀態가 달라진다。

첫재로 舌根이 咽喉壁으로 당겨져 喉頭的 通路가 狹窄하여 진다。 또 그 밖에 모든 發音器官의 作用이 緊張된 狀態에 있게 된다。 이러한 事實은 다음의 事實로 證明이 된다。

第一. 먼저 小倉氏는 된소리를 낼 때의 터져 나오는 숨의 힘이 平音의 境遇보다 弱하다는 것이다。 이 숨이 弱한 것은 숨이 첫재로 聲門에서 한번 막혀 그 힘을 잃은 데에다가 다음에 또 좁은 喉頭的 通路를 지나오게 되니까 自然히 다음에 또 한번 막은 끈을 트고 나올 적에는 아주 약하여 진다。 된소리의 숨의 힘이 平音의 境遇보다 弱한 것은 實驗할 수가 있으니, 손바닥을 입에 대고 「바」와 「빠」를 하여 보면 알 것이다。

第二. 또 한가지 實驗方法은 우리가 人爲的으로 舌根을 咽喉壁으로 당기어 喉頭的 通路를 좁힌 다음에 聲帶를 振動시키어 母音을 낼 수가 있다。 이 때에 나는 소리는 우리 귀에 되게 들린다。 이와 같이 된母音을 내면서 두 입술을 막았다 터놓으면 우리는 實「빠」소리를 듣게 된다。 이 事實은 더욱이 된소리를 낼 적에는 喉頭的 通路가 좁아진다는 事實을 明白히 證明한다。 城大 言語學教授 小林黃夫氏가 閉搾音 Suffocata으로 보고 나에게 그러치 아니하냐고 물어 본 일이 있다。 된소리를 이리케 觀察한 것은 事實의 一面을 밝히 본 것이라 하겠다。

第三. 甲狀突起 위에 舌根이 잇는 끈에 손가락을 대고 된소리 ㅃ을 내면 舌根이 緊張狀態에 있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 事實은 第一의 事實을 더욱 確實히 한다。

第四. 두 귀를 막고 仔細히 살피며 된소리를 세게 내면 喉頭的 破裂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第五. 氣壓이 平音보다 높다。

第六. 된소리가 硬音聲位라 하지만 實際 發音에는 그 聲門 Glottis의 閉鎖程度가 音에 많아 같지 아니하며, 또 말이 같지 아니하면, 더욱이 같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된소리로 듣는 中國의 音과 또는 Romance語의 佛語의 p, t, k音에 對한 觀察을 必도 큰 參考가 될 것이다。

첫재 中語에서 薄勺 德勿 克勺等音이 이들 된소리다。(黎均筌 陸衣言 共編 國音易解 17-18 페이지) 이 소리에 대하여 中國 發音學者 高元氏는 勺, 勿, 勺의 音은 南部 獨逸이나 佛語의 p t k와 같다고 하고, 이 音에 對하여 이러한 主張을 하였다。

그는 이 音의 本質을 涉音 Glide (氏는 流音이라고 하였다。)으로 說明을 하였으니, 勺(ㅃ)와 女(ㅈ)의 分別이 어찌서 생기느냐 하는 議論의 決論으로 이리케 말하였다。

『勺與女 勿與去 々與勺 就樂音化上說 他們自身 同是清的。可是他們的 後流前者是濁的 後者是清的一這就是 他們的區別處所』 이 말에 依하여 보면, 例言하면 破裂音의 第三時相이 ㅃ는 有聲인데 ㅈ는 有氣란 뜻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純粹無聲인 우리 말의 平音과 어떤 差異가 있다는 說明은 없다。 한거름 나아가 된소리의 다음의 母音의 Onglide가 硬音聲位란 說明까지 있어야 될 것이다。(高元: 國音學, 35)

그러면 佛國의 p, t, k는 發音學者들이 어찌케 보는가。

Vietor著 Kleine Phonetik에 보면, 佛音의 p, t, k에 對하여 모두 거의 聲門을 닫어 가

지고 내는 소리라 하였다。

Der stimmlose [p]-Laut(mit nahezu geschlossener stimmritze) (p, 74) (거의 닫은 聲門으로 내는 無聲 [p]라는 뜻。)

Das stimmlose [t], mit fast geschlossener stimmritze, (p, 73) (거의 닫은 聲門으로 내는 無聲 [t]라는 뜻。)

Der stimmlosen Laut [k], der mit nahezu geschlossener stimmritze gebildet wird, (p, 71) (거의 닫은 聲門으로 내는 無聲 [k]라는 뜻。)

以上の 모든 事實을 미루어 우리의 된소리는 硬音聲位에 依하여 나는 것만은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이 과연 佛語의 그것과 中國의 그것에 比較하여 어떠한 差異가 있는지는 앞으로 많은 實驗이 없이는 알 수 없을 것이다。

註3. 硬音聲位에 對하여 日本사람은 木たゝ聲位(佐久間鼎著 一般聲音學 p, 83)라 하였고, 또 西洋사람들도 hard sound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소리에 對한 느낌은 모두 같다。

그런데 D. Jones氏는 Das System Der Association Phonetique Internationale의 「Lautzeichen Und Ihre Anwendung In Verschiedenen Sprachgebieten」26頁에 보면 Ejektive Konsonanten이란 條下에 괄호 안에 이리케 註를 달았다。 Konsonanten mit gleichzeitigem oder fast-gleichzeitigem Kehlkopfverschluss, wie in Zulu und Hausa (출루와 하우스 말에서와 같이 同時 또는 거의 同時에 喉頭를 닫는 子音)

이 소리를 佛國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別問題로 하고 이 소리들도 된소리임은 確實한 것 같다。

또 이 註釋에 依하여 보면, 우리의 된소리를 Ejektive Konsonant라 부른 것 같으며, 이 音標文字는 p', t', k', ts' 등으로 表示하였다。 萬一 우리의 것을 國際音標文字로 表示한다면, ㅍ[p'], ㅌ[t'], ㅋ[k'], ㅈ[c' = dʒ], ㅊ[s'] 이와 같이 하였으면 좋을가 한다。

그리고 Jones氏가 말한바 출루말과 같이 喉頭 破裂作用이 發音器官의 作用과 同時인지 또는 거의 同時인지는 아직 明言하기 어려울듯 싶다。 以上에서 不足하나마 된소리의 本質的 發音作用은 說明된 줄 생각한다。

우리의 된소리가 有聲이나 無聲이나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듯 싶다。 나는 決코 有聲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有聲이라면 破裂音의 三時相의 第二時相에서 聲帶振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到底이 이 作用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아마 된소리의 本質上 第二時相에 있어 振動을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

註4. 破裂音은 聲音學上에서 三時相으로 區別하며 본다。 第一時相은 閉鎖, 第二時相은 閉鎖하고 있는 동안 第三時相은 開放。

佛國의 p, t, k를 된소리라 하면, 그네들이 이 소리에 對한 見解를 들어 보자。 或이 例를 들어 말하면, 當場에 佛語의 p, t, k는 우리의 된소리와 다르다고 反對할지 모른다。 그러나 佛語의 p, t, k는 된소리인 것만은 確實하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 소리에 對한 觀察은 우리에게는 큰 參考가 된다。

Jones氏는 佛語의 p, t, k를 Breathed Plosives (氣音的破裂音)에 넣어서 說明하면서 Unaspirated(無氣音)으로 보았다。 (English phonetic p, 34) 또 佐久間鼎氏는 一般 聲音에서 純粹無聲의 例로 佛國의 p, t, k를 들었다。

以上の 모든 事實도 보아 斷定코 有聲音이란 意見에는 贊成할 수가 없다。 勿論 破裂

의 瞬間에 氣音이 들리지 않고 바로 聲帶振動이 있는 것은 事實이다。

또 이 音에 對하여 單音이나 複音이나 하는 問題도 있으나, 이것은 別로 問題 삼을 것도 없다. 單複을 가르는 것은 一般 音聲學에서는 聽覺的 印像에서 하나냐 둘이냐 하는 것으로 보아 單音이라 또는 複音이라 한다. 萬一 그 發生論的으로 單複으로 가르려고 하여서는 判斷은 迷宮에서 헤멜 뿐이다. 如何히 簡單한 音도 無限한 函數를 가진 까닭이다. 혹 西人이 우리의 된소리를 pp, tt, kk等으로 적는다. 이것은 우리의 된소리를 적는데 自己의 語音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對照해 놓은 結果다. 그런데 pp, tt, kk를 文字上으로는 두 글자이지마는, 事實은 이른바 長子音으로서 그 音聲的 音價는 [p:] [t:] [k:]에 該當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마디할 말이 있으니, 우리의 된소리를 어떻게 表記 할 것이냐 하는대 對하여서는 나는 雙書가 合理하다고 생각한다.

그 仔細한 理由說明은 여기에 略하거나와 된소리에 「ㄷ시옷」使用은 一音素 一文字의 (One phoneme One Letter) 音素文字의 理想을 깨트리므로 到底히 贊成할 수가 없다. 나는 卍 ㄷ ㄱ ㄴ ㄷ ㄴ 은 모두 한 글자로 만들어 卍 ㄷ ㄱ ㄴ M로 쓰자는 것이다. 李熙昇氏도 이런 意見을 發表한 일이 있었든 것을 記憶한다. 또 實際로 손으로 쓸 적에는 모두 한 字로 쓰고 있다. 그런데 아직 活字에는 實用되지 아니하여 유감이다.

三. ㄷ [l]은 과연 된소리인가.

朴勝彬氏는 된소리를 적는 모든 글자를 平音에 된소리 符號로 된시옷 使用을 主張한다. 그런데 氏는 우리의 語音에 있는 [l]소리를 「ㄷ」로 表記한다. 氏는 아마 우리의 [l]소리를 (從來에는 이 소리를 ㄹ, ㄹ 또는 ㄹ ㄴ으로 갈라 적어서 表記하였으니, [hi, li, la]를 흘려 또는 흘너로 적어 온 것이다.) [r]의 된 소리로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吾人의 音聲知識으로는 到底히 理解할 道理가 없다.

元來 [l]소리는 [r]소리를 硬音聲位로 내지 아니하는 것은 再言을 要하지 않거나와, 氏의 硬音의 本質에 對한 見解에서 [r]을 몇 萬番을 낸다 하여도 [r]소리는 언제든지 [r]소리 밖에 아니된다. [l]과 [r]은 全然 性質이 다른 音이다. [l]은 舌側摩擦音이요 [r]은 舌端顫音이다. 혹 말하기를 조선말에서는 이 事實이 嚴然히 存在하지 아니하여 홀도의 例를 보면 ㄹ과 ㄹ이 合하여 [l]소리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리케 反問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 觀察은 文字에 拘泥되어 音聲事實을 曲解한 것이다. 홀도의 境遇는 [r+r]=[l]이 된 것이 아니다. 차라리 [l+r]=[r]라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바침으로 나는 ㄹ은 언제나 그 音價가 [l]이니가 [l]소리 밑에 [r]소리가 와도 結局 同化되어 [l]소리 밖에 아니 들린다. 이런 事實을 誤解하고 ㄹ([r])에 된소리 符號로(ㄷ)을 붙여 ㄷ를 만들었으니, [r]이 무슨 재주도 되어지는가. 이러한 錯誤된 音聲觀察에서 出發한 氏는 大膽히도 正字法의 字母로 「ㄷ」文字를 만들어 쓴다. 또 氏는 이 경우의 「ㄷ」은 ㄹ 곳 [r]의 된소리가 아니라, [l]소리를 적는 한 記號로 「ㄷ」字를 만든 것이라 할 것이다. 元來 이런 口實도 自己의 本意가 아닐 것이 어니와, 또 이런 理由下에서 「ㄷ」字를 만들었다고 치자. 나는 우리 밑에서는 [l]소리를 적는 글자를 만들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朝鮮音에 있어서는 [r]과 [l]이 한 소리겨레 One phoneme에 屬한다. 그러므로 굳히야 만들 必要도 없다. 萬一 文字를 吾人의 聽覺으로 識別할 수 있는 모든 單音을 表記한다면, 各音에 對하여 一一히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다면 우리 말소리에 있는 口蓋音化한 ㄴ과 [ㄷ], ㄹ([r])도 각각 文字를 왜 만들지 아니 하는가. 萬一 以上에 말한 理由밖에 무슨 別理由가 있으면 들려 주기를 바란다.

이 적은 論文으로 「된시옷의 제바탕」이 무엇인 것을 말하여 보려고 하였다. 어느 程度까지 事實이 밝혀졌는지 스스로 많은 躊躇를 하거나와 이에 對한 諸先輩의 高見을 듣고 싶다. 끝으로 朴勝彬氏의 「ㄷ」字 使用의 根本的 見解를 說明하여 주기를 바라며 붓을 던진다.

朴勝彬님의 主張은 果然 從來 慣用에 가까운 平易한 것인가?

그의 獨斷的 理論에 基한 實際的
表記法의 怪奇難解를 摘發하노라

崔 鉉 培

(一)

甲午更張 以來로 조선민족의 先覺 俞吉濬 崔光玉 周時經 여러분이 한글運動을 高唱함으로 부터 朝鮮民族의 文化的 自覺이 날로날로 깊어지고 새로워져서 조선 한글의 研究와 整理와 使用이 자꾸자꾸 發展하여 감은 現著한 歷史的 事實이다, 朝鮮民族의 將來를 걱정하며, 民族文化의 向上을 圖하며, 科學的 理論에 根據한 民族生活의 發展을 願하는 人士는 或은 言論으로, 或은 新聞雜誌로, 或은 教育으로, 或은 著書로, 한글運動의 深化 및 強化를 促進하고 있다. 이는 沈滯한 朝鮮 社會에서 한가지의 可觀할 現狀이다.

그러나 우리 한글運動은 單純한 復活運動이 아니요, 科學的 理論에 基한 整理 및 普及의 運動이다. 따라 거기에는 얼마의 改革이 있음은 免할수없는 事實이다. 그리하여 이미 無法한 舊式 表記法에 져은 사람들은 多少의 不便을 느끼게 된 것도 事實이다. 그뿐 아니라 이 改良된 表記法에 依한 한글을 아이들이 完全히 배우기에는 前日의 不完全한 것을 不完全하게 배우기보다 多少 努力을 더 쓰게 됨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 改良整理된 한글이 어렵기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完全한 것을 完주히 배우기에 힘이 더 든다는 것 뿐이다. 만약 이 改良整理된 한글의 學習도 完全을 期치 않고 제대로 不完全한 結果에 滿足한다 할진대 무엇 어렵다 할 것이 別로 없을 것이다. 人間의 凡事는 그 最善을 期하는 데에 相當한 어려움이 있음은 免치 못할 事情이다. 아무러케나 배워서 아무러케나 살아 나갈라. 하면이야 무엇이 어려울 것이며, 또 何必 改革이니 整理이니 할 것이 무엇이 있으리오. 모든 努力은 그 事物의 向上과 發展을 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整理된 한글을 배우기에 아이나 어른이나 多少의 힘이 들것을 認定한다. 그러나 배우기는 一時的의요 쓰고 읽기는 一生의 일이다. 一時的의 學習의 어려움을 課합은 一生의 讀書와 使用에 큰 便利를 爲함이니, 大易, 大利를 爲하小難 小害를 犧牲함은 사람의 文化生活의 必要한 過程이다. 鑿山通道가 어려운 일 아님이 아니며, 斷河架橋가 어려운 일 아님이 아니로되, 財産과 人命을 버려가면서 이를 期成함은 一時的의 困難과 損害를 犧牲하여 未來 無數한 사람의 永久한 便利와 多大한 利益을 爲함이니, 이에서 人類의 文化가 發達하는 것이며, 人類의 生活이 向上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文化生活의 大原則을 배반하면 이는 競爭이 劇烈한 現代 生活에서 落伍者 될을 免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眞實한 學究的 態도와 確乎한 科學的 理論에서 한글을 整理하여 감은 이러한 文化生活의 大原則에 터잡은 (基한) 것이다.

그러한데 人類社會의 改革이 이러할 적에는, 그 改革이 아무리 必然한 至當한 要求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社會의 舊勢力은 이에 不安의 反感을 가지는 것은 東西古今을 勿論하고 다 한가지다. 다만 그 舊勢力層에서 自覺을 가지고 進取的 態度를 取하는 分子만이 그 새 改革運動에 合流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한글運動도 亦是 一種의 文化的 革新이다. 民族生活의 將來를 爲하여 民族文化의 積極的 建設을 企圖하는 科學的 進取的 態度를 取하는 分子는 그 多少를 勿論하고 우리의 한글運動을 當然視하며 擁護하는 줄을 우리는 안다. 그러치마는, 或 小我에 沾히어서 恒例의 不安과 反感을 가지는 이가 없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그네들은 입을 열어 한글의 科學的 整理의 어려움만 들어 非難하라 한다. 勿論 오늘의 整理가 아주 完全히 다 되지 못하였으니 까, 或間 不當한 어려움이 섞여 있을 줄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非難에도 虛心但懷로써 귀를 기우릴 雅量과 學者的 態度 가지기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치마는 單純한 小我에 沾힌 不安과 反感이 사람을 따라서는 간혹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科學的 朝鮮의 出現을 期待하는 青年과 進取性 많고, 前進하는 朝鮮의 將來의 光輝를 바라는, 老年에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기는 하지마는 얼마간이라도 그러한 숨은 不安과 反動이 잇을 것만은 事實이다.

(二)

이 때를 當하여 微妙한 人心의 弱點을 達서, 낡은 無法한 慣例를 尊重하며 따라 가 장 平易들 正眼으로 삼는 척하는 旗幟를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잇으니, 그는 곳 辯護士를 本職으로 하고 朝鮮語學에 많은 趣味를 가지신 朴勝彬님이다. 그는 여러가지 方法으로써 우리들의 한글運動에 反對攻擊하기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충절을 거쳐 우리들의 隱忍의 주머니도 터지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東亞日報社 主催의 「한글綴字法討論會」가 열리게 되어, 우리 쪽에서 申明均, 李熙昇, 崔鉉培 세사람, 저편에는 朴勝彬, 白南奎, 丁奎祐, 세분이 各各 個人의 資格으로 出戰하여 十一月 七日부터 九日 까지 사흘 동안에 每夜 七時에서 十時 或 十二時까지 社會 各方面의 有志 人士 數百名의 靜肅한 傍聽 앞에서 白熱的 論戰을 하였다.

社會 各界 人士의 靜肅한 聽論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眞理를 披瀝하여 그 高明한 批評을 빌 機會를 얻게 되었음은 우리의 한 快事도 생각하는 바다.

이 對論會의 問題는 첫날은 並書 問題, 둘째날은 結바침 問題, ㅎ바침 問題, 셋째날은 用言의 活用 問題이었는데, 그네들은 同字並書와 結바침과 ㅎ바침의 不可를 主張하고, 用言의 活用 問題에 關하여는 所謂 段活用을 主張하였음에 對하여 우리 세사람은 앞의 세 問題에 對하여는 그 可함을 主張하고, 活用 問題에 對하여는 그 所謂 段活用이란 것이 文法的으로 何等의 價値가 없음을 말하고, 따로 用言의 活用法을 主張하였다.

이번의 論戰에서 그의 모든 主張이 一般 文字學, 聲音學, 言語學의 基礎知識이 없이 다만 굳어굳어 주먹구구式 獨斷의 論理임이 餘地없이 暴露되었음은 그 자리에서 그 論戰을 들으신 분은 다 認定한 바이다. 이제 나는 그 자리의 兩便의 主張을 여기에 一一히 말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다만 朴氏의 主張이 얼마나 言語의 現實的 事

實性を 無視하고 그 獨自의 獨斷的 理論으로 말미암아서 過速히 歸結된 『朝鮮文 記寫法』이란 것이 얼마나 常理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從來의 慣例에 벗어남이 甚한가를 밝히 내어서 天下 人士로 하여금 그의 거짓된 標榜과 宣傳에 眩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한다.

世人이 혹 朴님의 主張에 贊意를 表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그 理由를 무르면, 朴님의 主張은 從來 慣用式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通俗的이요, 가장 平易한 때문이라 함이 그 對答의 內容이다. 그러나 이것은 朴님의 主張이 果然 從來 慣用式 그대로 하는 平易한 通俗的인 것인가를 조금도 實地로 檢察하여 보지도 않고 다만 朴님의 거짓 宣傳에 속은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朴님의 主張을 實地로 아러 보았더라면 決코 그러한 盛거운 贊意를 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나는 이러한 이들에게 朴님의 主張의 怪奇難解의 內容을 숨김없이 實地로 들어내어 보여 들여서, 그 誤信과 虛贊을 匡正하는 資料에 供하고자 한다.

(三)

첫째. 硬音符號란 것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記法을 唱導한다. 例;—

봄 // 바람(봄싸람), 안 // 고(안쇼), 심 // 고(심쇼),

싸 싸 싸 싸 쏘 쏘 쏘 쏘

이러한 글자를 訓民正音에는 勿論, 한글歷史 五百年에 아모대도 없는 것이다. 그의 理論을 正當히 밀워보면 다음과 같은 글자도 쓰게 된다. (그는 表面으로는 이것만을 認치 아니하지마는). 例;—

싸싸.....

싸싸.....

이것이 果然 從來의 慣用을 重하는 것입니까. 또 「古訓」을 依據하는 것이라 하겠읍니까.

둘째. 激音符號를 만들어 내어서 쓴다. 激音이란 것은 聲音學的으로는 有氣音(Aspirate)이라 하는 것인데, ㅋ, ㆁ, ㆁ, ㆁ, ㆁ等이다. 이 따위 소리는 ㄱ, ㄷ, ㄹ, ㅈ 등이 古과 合하여 된 것임은 우리말의 實際에 그러할 뿐 아니라 (例;—각하=가카,(그러하고=그러고고=그렁고=그려고) 世界 聲音學에서 이를 認定한 것이며, 特히 萬國聲音學會 符號를 各國 語音에 應用하여 說明한 英國의 聲音學者 존스(D. Jones)님은 조선어의 有氣音은 世界에서 類例가 드문 強烈한 것이라 하여 k에 分明한 h를 더하여 kh로 表記함이 愈겟다 하였다. (D. Jones; Lautzeichen und ihre Anwendung in verschiedenen Sprachgebieten) 그러걸을 朴氏는 그의 獨斷的인 古論과 發聲音 單一性論을 根據로 하여 勇敢스럽게도 이를 否認하고, 어느 聲音學 책에서도 볼수 없는 激音調에 關한 獨特한 音理를 말하고, 따라 激音符號「ㄱ」를 特製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記法을 取하게 된다. (括弧內的 것은 우리들의 記法이니, 어느것이 더 어려운가? 여러분은 試驗해 볼 지어다.)

도ㄱ고(종고), 만ㄱ고(망고).

可ㄱ다(可타), 便安ㄱ다(便안타).

길이 쓴 ㅏ (글쪄다)。

朴님은 「現代評論」 其他 雜誌에서 「ㅎ는 무엇이나」等 ㅎ에 關한 長篇 論文을 發表하고서 ㅎ바침 反對論을 主唱하였다。世上 사람들은 첫재 그의 ㅎ바침 反對 그것에 俗見的好感을 가지고, 또 그의 滔滔한 數千言의 長篇 論文에는 무슨 相當한 科學的 眞理의 發見됨이 있으려니! 하고 그의 說을 內心으로 歡迎하는 形便이 사람을 따라서는 없지 아니하다。그러나 事實은 사람들의 期待와는 全然히 違反되었다。한번 그 長篇의 ㅎ論을 읽으면 그 思考方法과 說明方式이 도모지 非科學的임을 發見할 수 있다。그러하여 그 結論에 大膽한 過速한 獨斷이 되고 만 것은 덮을 수 없는 事實이다。그뿐아니라 ㅎ는 바침이 될 수 없다는 理論에서 正말로 ㅎ바침을 全然 廢止하고 그만 純然히 世間의 慣例대로나 썼던들 (例. 「쫏다」를 「조다」로, 「쫏고」를 「조고」로, 「쫏지」를 「조치」로나 썼던들) 그 理論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結果만이나마 世間의 平易化의 期待에나 맞았을 것을, 朴님은 그리하지도 아니하고 自家의 獨特한 誤論에서 所謂 不得已하여 特製한 激音符號 「ㅏ」를 使用하여

「쫏다」를 「조ㅏ다」로,

「쫏고」를 「조ㅏ고」로,

「쫏지」를 「조ㅏ지」로,

적으니, 이것들 (조ㅏ다, 조ㅏ고, 조ㅏ지)이 우리들의 記法에 依한 것 (쫏다, 쫏고, 쫏지)보다 果然 쉬울가요。世人은 空中대놓고 朴님의 虛僞宣傳에 속지 말고, 한번 그 實際的 處理의 結果를 몸소 살펴보고서 判斷을 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무엇보다 實地 調査! 이것이 오늘날 正當한 判決의 先行條件이 아닌가。ㅎ은 우리의 아는 글자이요, 또 ㅎ과 ㄴ, ㄷ, ㅈ……을 連發하면 ㅋ, ㆁ, ㅌ……이 되는 것은 우리말의 實際가 그리할 뿐아니라 (여러가지 方法으로 이를 實驗할 수 있음) 歐洲 諸國의 世界 有數한 聲音學者들이 共認하는 바이다。이러한 ㅎ을 내버리고서 「ㅏ」를 씌어 무엇이 저것보다 더 便利平易한 것이 있을가。우리는 「ㅎ」보다 「ㅏ」가 比較할 수 없이 더 怪異하고 더 어려울 줄을 믿어 疑心치 아니 하노라。

그러나 慣例尊重을 標榜한 朴님이 왜 이러케 도토 어렵게 만들었나? 이것이 우리의 한번 생각하여 볼만한 점이다。朴님의 說明에 依하면

「조다, 조고, 조치」

로 적는 것은 文法의 法則에 틀러니까 (곧 「다, 고, 지」란 助辭는 잊지미는 「라, 코, 치」란 助辭는 絶無하니까) 그리 적을 수는 없다。그러하여 不得已 特히 激音調符號를 創製하여서

「조ㅏ다, 조ㅏ고, 조ㅏ지」

로 적어 整理한 것이라 한다。우리는 朴님의 이러한 文法家的 態度에 對하여 滿腔의 敬意를 表하며, 또 그가 自家의 本旨에 違反하면서, 文法的 表記의 切實한 要求에 依하여 저 怪奇한 激音調符號 「ㅏ」의 創案을 不得已하였다는 그 苦衷에 對하여 同志的 同情을 禁치 못하겠다。그는 確實히 世間의 俗見에 迎合하는 거짓 政治家가 아니요, 文法的 理論에 基하여 될 수 있는대로 言文을 整理하라는 우리 文法家的 同志임이 틀림이 없음을 나는 確言한다。

그러면 우리의 確實한 同志 朴님은 무슨 까닭으로 우리들과 正反對의 意見을 가진이
로 들어나게 되었나?, 이는 다만 「ㅎ」, 더 一般的으로 激音一般에 對하여 聲音學的
의 研究가 조금 不足한 所致일 따름이요, (이 점은 우리의 眞이 愛惜히 擄기는 바이다^o)
決코 兩者 사이에 文法的 見解가 懸殊한 점이 있는 때문은 아니다. 만약 그가 ㅎ 및 激
音一般의 原理를 한거름만 더 깨쳤더면, 決코 저러한 世間의 誤解를 이르지 아니하
였을 것이다. 그러한즉 ㅎ바침에 對하여는 그와 우리와의 사이에 一致는 八九分이요,
不一致는 一二分이다. 그러므로 저번 討論會에서 그도 말씀하셨다. 「兩者의 所見은 白
紙한장의 差뿐이라」고. 참말이다! 確實히 그러타! 世人은 이 點에 關하여 바로 보기
를 바란다.

셋째. 複雜하고도 理致에 맞지 않은 中間音(두 單語가 合하는 경우에 그 中間에 쓰
히는 소리)의 表記法:(括弧內는 一般의 記法이니 우리도 大概 이와 같다.)

소오나무(소나무), 나무오가지—나무 〃 가지—나무싸지(나무가지).

봄 〃 바람—→봄싸람(봄바람).

어제 〃 눈—→어젯눈(어제눈).

바다 〃 물—→바닷물(바다물).

파주 〃 민씨(坡州閔氏)—→파주민씨(파주민씨).

讀者 여러분! 이 中間音을 혹은 獨立한 朴氏 特製의 硬音符號「〃」로, 혹은 된시옷
으로, 혹은 「ㄷ」으로, 혹은 「ㅂ」으로—이러케 여러가지로 無規律하게 쓰이 좋겠나?
우리는 그 煩雜無法을 除去하고, 簡單한 處理를 從히야, 從來의 慣用대로 中間시옷을
두든지, 혹은 實際의 發音대로 中間디귤을 쓰이 옳다 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야말
로 慣例와 平易를 置重하는 사람이지, 朴님이 그이는 아니다.

넷째. 그의 「段活用」에서는 原段의 音(우리의 術語로 하면 語幹의 末音)을 아段(例
去가), 어段(立서), 여段(鉅켜), 오段(來오), 우段(借우, 易쉬우), 으段(大크, 深기프),
이段(負지)의 七種에만 限하고 「애, 예, 외, 위」의 段은 認치 아니한다. 그 結果 다음
과 같은 奇怪한 表記法이 들어나게 되었다. 곧 (括弧內는 우리의 主張하는 表記法이
다. 서로 比較하여 보라).

날이가이다

(날이개다)

아이들자이오 (朝鮮語學講義要旨——略號「要旨」152頁)

(아이들재오)

니불이잘가이켜소 (要旨 150頁)

(니불이잘개어졌소)

잠이까이다

(잠이개다)

그릇을까이다

(그릇을개다)

先生이性나히오 (要旨 188頁)

(先生이성내오)

宋氏에게보나시오 (要旨 168 頁)

(宋氏에게보내오)

그사람이곧서이다

(그사람이곧세다)

鋪을머이다 (全書 152 頁)

(鋪을메다)

쌀을도이다

(쌀을되다)

사람이도이다

(사람이되다)

泰山이높다하야도하늘아래모이이로다,

오르고오르면오를理업것마는,

사람이저——아니오르고山을높다하도다(要旨 194 頁)

(泰山이높다해도하날알에되이로다,

오르고또오르면오를理없것마는,

사람이제아니오르고山을높다하도다 (외만높다하더라))

갈을주이고 (全書 150 頁 類例)

(갈을쥐고)

꽃이푸이오 (全書 193 頁)

(꽃이피오)

숨을수이다

(숨을쉬다)

땀을뚜이다

(땀을뺀다)

콩이투이다

(콩이튀다)

부모틀여으이다

(부모틀여의다)

이것을 보고도 如前히, 朴님의 主張이 從前의 慣用을 尊重하는 理論이라 할 이가 있을가? 어대예 그의 表記와 같은 말이 事實上 잇기나 잇나? 朴님의 主張이 結局은 自家의 偏見에 依하여 實際의 말을 제맘대로 改定하는 것임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잠이 깨이다」가 어째서 「잠이 깨다」를 뜻하는 것이 되며, 「쌀을 도이다」가 어째서 「쌀을 되다」의 뜻이 되는가! 우리의 눈으로 볼것같으면 朴님은 文法家의 本分을 잇은 越權的 處斷을 하는 이일 따름이요, 決코 決코 民間의 習慣과 言語의 事實性을 重視하는 이가 아님이 餘地없이 暴露되고 말았다.

다섯째. 그의 獨特한 怪論 段活用을 實地에 應用한 結果는 다음과 같은 表記法(직는 법)이 되어 드러난다. (括弧안의 것은 우리들의 改定한 맞춤법이니, 어느것이 果然——常理와 慣例에 더 가까운가 견주어 보시기를 바란다.)

글을닐급니다 (要旨 186 頁)

(글을읽읍니다)

나무가만히이스브니다(要旨 86 頁)

(나무가많이잇읍니다)

늘근漁夫가큰고기를자바쓰오(要旨 191 頁)

(늘은漁夫가큰고기를잡앗소)

李君이돈을바다쓰口이分明하오(要旨 188 頁)

(李君이돈을맡았음이分明하오)

기러기가빠르히나라가오(要旨 186 頁)

(기러기가빨리나라가오)

달게머거쓰오(決코 賄賂같은 것을 甘食하고 잘 삭이지 못하여서 도로 苦味로 化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달게 먹었다는 뜻 뿐이다)(要旨 173 頁)

(달게먹엇소)

비나눈이오개쓰오(要旨 186 頁)

(비나눈이오겠소)

會의代表로와쓰브니다(要旨 168 頁)

(會의代表로왔음(습)니다)

도흔붓을사셔씀니다(要旨 193 頁)

(좋은붓을사섯읍니다)

꽃이보기도기게푸여쓰오(要旨 187 頁)

(꽃이보기종제피엇소)

어름을노그히오(要旨 154 頁)

(어름을늑히오)

나무를시므히고(全書 154 頁)

(나무를심기고)

구멍을떠이운다

(구멍을떼운다)

배들江邊에다호히고(全書 154 頁)

(배들江邊에방이고——대고)

下人하여서떡가루를바호오(全書 154 頁)

(下人을시켜서떡가루를뺏이오)

붓을달기리다(全書 154 頁)

(붓을뺏린다)

나에게마이힌사람

(나에게매힌사람)

그림이잘그리킨다

(그림이잘그려진다)

讀者 여러분! 무슨 차림이 이러케 쓸리가 있나! 고 하실만큼 너무도 怪異하지

(四)

以上를 總括하여 보전대

1. 그는 歷史的 根據——그의 所謂 古訓——를 소중히 녀기는 듯 하면서 其實은 그러치 아니하다. 이를테면 그가 우리들의 古바침을 攻擊하되 古訓에 없음(其實은 있다)으로써 하더니, 그가 古바침을 하는 것은 「古訓」어대에 根據하였는가? 또 所謂 硬音符號「ㄴ」과 激音符號「ㄷ」은 어떠한 古典에 있던가? 또 「워」는 어대 있던가?——要컨대 이는 다 自家撞着의 無組織한 主張일 따름이다.

2. 그는 一家의 偏見에 依하여 산 말을 自由로 規律할라 하니, 이는 文法家의 正當한 本分을 모르는 越權的 妄計이라 아니할 수 없다. 文法家는 다만 事實의 말을 그 말 自體內의 法則을 發見하여서 整理說明할 따름이요, 決코 實際의 말을 左右하며 生殺하는 權限을 가진 것은 아니다.

3. 그의 記音法에는 어떠한 一定한 見解가 서지 못하였다. 天地를 「던디」로 적는 따위는 古音에 依할인듯 하지만, 鄭을 「뎡」으로, 趙를 「도」로, 적음은 무슨 標準에 依한 것인가. 玉篇에 依하면 鄭 趙의 音은 決코 多行이 아니라 自行이다, 趙를 도, 鄭을 「뎡」으로 적음은 亦是 日本말의 發音을 基礎로 삼고서, 輕便하게 推斷한 것이다.

또 그는 「도ㄴ다」「하디 아니하고」와 같이 쓴다. 이 「도」와 「디」를 어떻게 發音하란 말인가. 그 本音대로 소리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標準語가 아니다. 그렇잖으면 口蓋音化한 대로 (조, 지) 發音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왜 숫재 「조」「지」로 써지 아니하고 「도」「디」로 적는가? 그의 理由는 그리함이 古典的이라 함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朝鮮語音의 表記法의 標準은 古典에 있는 것이니, 이는 現代語를 科學的으로 整理하라는 우리의 態度하고는 全然히 相反되는 것이다. 우리는 「글자는 제 本音價대로 읽고, 말은 그 소리나는 대로 적자」하는 大原則을 主張한다. 그래서 (1)「종다」「하지 아니한다」로 적으며, (2)「遲덕디다, 덕더서」「撐버리다, 버러서」로 적는다. 이것이 大體 우리의 朝鮮語整理의 科學的 態度이다. 「도ㄴ다, 도ㄴ디」로 적는 朴氏로서는 「더디다, 덕더서」와 「버리다, 버러서」를 적어 낼 수 조차 없을 것이다.

要컨대 그의 朝鮮말 表記法에는 一定한 科學的 方法이 서지 못하였다.

4. 그가 文法的 表記로써 말을 整理하려 함은 우리와 같은 점이다. 그리하겠마는 어찌하여서 公연히 慣例를 尊重하는 척한 態度를 取하여 舊勢力의 歡心을 사랴함은 眞實한 科學者의 取할 바가 아니라 하노라.

5. 以上の 實地檢討에 依하면 朴氏의 主張이 通俗에 가까운 點은 된시옷을 쓰자는 것 한가지 뿐이다. 그러나 古수에 없는 多行에까지, 또 그의 理論을 展開應用하면, 多行 多行에 까지 된시옷을 쓰자 함이 된다. 그러고보면 된시옷 問題 그 自體안에서 말서 平易와 怪難이 並存하니, 通俗과 平易를 無條件으로 歡迎하려는 俗見의 立脚地에서도 決코 滿足할만한 有利點이라 할 수 없음이 分明하다. 그리고 그날까지의 여러 問題에서는 도모지 通俗에 가까운 點은 하나도 없고 다만 獨斷과 奇怪가 一般의 慣用을 더 어즈럽게 할 따름이니, 이르고도 오히려 朴氏의 主張이 通俗尊重에다가 若干의 理論(?)을 加味한 것이라 하여 萬에 한사람이라도 沒知覺하게 贊同할 것인가? 널리 世上有志人士의 一考를 바라노라. (1932, 11, 13)

요? 그러나 이것이 決코 우리의 惡意的 僞造가 아니요, 다 그의 著書와 論文에서 나온 것(그 가운데 갑자기 그 頁數를 다시 찾지 못하여 頁數를 記入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거나, 그의 親認을 받은 實例이다. 이것을 보고도 오히려 朴님의 主張은 여태까지의 慣例에 가까운 平易한 것이라 하며, 읽기 쉽고 깨치기 쉬운 通俗的의 것이라 할 수가 있으랴?

여섯째. 이름씨(名詞) 記法의 怪奇한 것의 보기 몇만 들면 이러하다.

수음(숨息), 소오나무(솔나무), 하누오님(하느님—하누님—하나님), 따오님(딸님—따님)

일곱째. 소리의 表記法의 奇怪한 것의 보기;—

나무가키쓰니싸올에는열매가열개쓰오(要旨 164 頁) (「열다」開가 어째서 「널다」인지, 그 根據가 어디 있는지 도모지 알수 없도다. 龍飛御天歌에서도 「여름」(果實)이라 하였는데),

(나무가킷으 니까올에는 열매가 열겟소)

새빨가ㄷ다(要旨 184 頁)

(새빨갱다)

너름에는太陽이가까와디오

(여름에는太陽이가까와지오)

도ㄷ다잘한다, 올ㄷ디그이가그일로왔고면(要旨 188 頁)

(좋다! 잘한다, 올지, 그이가그일로왔고면)

길이끈ㄷ것다(全 150 頁)

(길이끊겼다)

눈이오개쓰오

(눈이오겟소)

나—가가거나그이가오디오(要旨 17. 頁)

(내가가거나그이가오지요)

아이에게잘너져써쓰편(全書 164 頁)

(아이에게잘일럿엇으면)

사람이야거기에올라가기어렵디마는원송이야너너히올라가갓디(全書 193 頁)

(사람이야거기에올라가기어렵지마는원송이야너너히올라가갓지)

코끼리는코가기은썩러처럼길다(要旨 192 頁)

(코끼리는코가긴꼬리처럼길다)

던디(天地 천지)

덩거당(停車場 정거장)

당〃군(장사군)

덩서방(鄭書房 정서방)

여덟째. 이밖에 ㄷ ㅈ ㅊ ㄹ ㅍ 의 바침을 쓴 우리들과 같은 점이니, 다 從來의 慣例와는 같지 아니한 것이다.

소리들이 만나면 어찌 되나

—(音의 互相 關係)—

李 克 魯

一. 소리의 이음(連音)

三. 소리의 줄거나 죽어짐(略音과 默音)

二. 닿소리의 만나 바꾸임(子音接變)

四. 소리의 끊음(絶音)

마치 사람이 혼자 自由롭게 行動하는 것과 여럿이 서로 牽制하여 行動하는 것이 아주 다른 것처럼 소리도 제 하나만 날 때와 여럿이 서로 관계되어 날 때가 아주 다른 것은 환한 일이다.

조선말의 홑소리의 音價는 이미 本誌 第四號에 한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소리들이 서로 만날 때에 어찌케 되는 것을 말하려 한다

一. 소리의 이음 (連音)

바침의 넘어감이라 함은 한 音節의 바침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母音앞에 몰아서 한 세 音節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音節은 言語音節과 發音音節이 있나니, 前者는 語源, 語根, 語幹, 語尾, 單語等を 밝히는 綴字의 規定으로 된 것이오, 後者는 글읽거나 말할 때에 言語音節을 잇달아 내는 實際 發音에서 생긴 音節이다. 이것은 發音生理의 自然法則이므로 어느 겨레의 말이나 다 있는 現狀이다. 이제 보기를 들면 英語에 Numbering (言語音節은; 남버 잉, 發音音節은 남버링), Damper(言. 댁프 어, 發. 댁피), Thankyou(言. 탕크 유, 發. 탕큐), 獨逸語에 Gruendung(言. 그윈드 웡, 發. 그윈둥), Hinaus(言. 힌 아우쓰, 發. 히나우쓰), Ist er(言. 이스트 엘, 發. 이스텔), 佛語에 Mon ami(言. 몬 아미, 發. 모나미), Sansabri(言. 산 이브리, 發. 상사브리), Il est ici(言. 일 에스트 이시, 發. 일래티시).

이제 조선말의 連音法則을 말하면, 세가지 境遇가 있다. (1) 原詞와 로와의 關係나 또는 語幹과 補助語幹과의 關係와 같은 으뜸에 딸리어 쓰이므로, 제 本소리를 각각 가지려고 애쓰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2) 獨立한 資格을 가지고만난 品詞들이 제 各各 本소리를 바꾸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니, 만일 바침이 그 다음에 오는 母音으로 넘어가서 세 音節을 이루므로 本音價가 너무 달라서 뜻이 흐리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代表音價로 써 내는 綜合品詞나 各單語들이 있고, (3) 漢字語나 漢字 제 스스로는 다 獨立한 조선말에서는 單語의 資格이 없으므로 漢字綜合語가 된 때에는 純조선말의 경우와 같이 各字가 제 音價를 바꾸지 아니하려는 絶音現狀이 ㅏ ㅑ ㅓ ㅕ 앞에서는 없고, 그대로 連音이 된다. 위에 말한 세 가지의 實例를 다음과 같이 들것노라.

1. 으뜸과 붙음의 관계로 된 말,

言語音節	發音音節	言語音節	發音音節	言語音節	發音音節
박(匏)	박이=바기	박은=바근	박에=바게		
손(手)	손이=소니	손은=소느	손에=소네		
빔(債)	빔이=비디	빔은=비든	빔에=비데		

달(月) 달아=다라 달은=다른 달에=다래
 감(柿) 감이야=가미야 감을=가를 감에도=가메도
 밥(食) 밥이면=바비면 밥은=바븐 밥에=바베
 이것이(此物) 이것이=이거시 이것은=이거슨 이것에=이거세
 상(床) 상에만=사에만 상을=사을 상이=사히
 낮(晝) 낮이=나지 낮은=나즌 낮에만=나제만
 꽃(花) 꽃이라도=고치라도 꽃은=고즌 꽃에=고체
 부엌(廚)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부엌에=부어케
 밭(田) 밭이=바티 밭으로=바드로 밭에=바레
 앞(前) 앞의=아피 앞을=아플 앞에도=아페도
 녀(媿) 녀이=녀시 녀을=녀슬 녀에는=녀세는
 둥(莖) 둥이=돌시 둥을=돌슬 둥에는=돌세는
 남(木) 남이=남기 남은=남근 남에도=남게도
 닭(鷄) 닭아=달가 닭의알=달기알 닭에만=달게만
 적(小) 적은=저근 적어도=적거도 적이=저기
 굳(固) 굳은=구든 굳어서=구더서 굳이=구더
 줄(縮) 줄으면=주르면 줄어야=주러야 줄인다=주린다
 감(捲) 감아라=가마라 감은들=가문들
 잡(執) 잡아서=자바서 잡을=자블
 솟(聳) 솟아도=소사도 솟으므로=소스므로
 맺(結) 맺았다=매졌다 맺으면=매즈면
 좇(從) 좇았다=조찾다 좇은들=조춘들
 같(如) 같아서=가타서 같은=가른 같이=가리
 높(高) 높아도=노피도 높은=노픈 높이=노피
 놓(放) 놓았다=노핫다 놓으면=노흐면 놓인다=노힌다
 깎(削) 깎아라=까까라 깎았다=까깎다
 앉(坐) 앉으면=안즈면 앉아도=안자도 앉을=안즐
 많(多) 많으면=만흐면 많아서=만하서 많은=만흔
 핥(舐) 핥아라=할라라 핥은=할른 핥을지=할들지
 읊(咏) 읊어라=을피라 읊을=을플 읊었다=을핏다
 옹(可) 옹아도=을하도 옹은지=을흔지 옹을=을홀
 없(無) 없어도=업서도 없을=업슬 없었다=업섯다
 맑(淸) 맑아서=말가서 맑으면=말그면 맑은=말근
 밟(踏) 밟아야=발바야 밟을지=발블지 밟은=발븐

2. 獨立한 單語가 그냥 만나거나 혹은 綜合品詞가 될적.

言語音節	發音音節	發音不通
부엌안에(廚內)=(부엌안에)=부어가네		부어가네
젖안이(乳內)=(젖안이)=저다니		저자니

옷오른다(漆)=(옷오른다)=오도른다	오초른다
밭언덕(田丘)=밭언덕=바던덕	바던덕
갓옹지(冠帽)=(갓옹지)=가둥지	가둥지
옷안(衣內皮)=(은안)=오단	오산
무릅우에(膝上)=(무릅우에)=무르푸에	무르푸에
툭안에(週內)=(돌안에)=도라네	돌사네
그값안주고는=(그값안주고는)=그가반주고는	그값산주고는

3. 漢字音의 綜合할적.

言語音節	發音音節	發音不通	言語音節	發音音節	發音不通
작인(作人)=자킨	작닌	작닌	절용(節用)=저룡	절룡	절룡
각양(各樣)=가장	각냥	각냥	갑일(甲日)=가빌	갑닐	갑닐
격일(隔日)=겨길	격닐	격닐	납입(納入)=나빔	납닐	납닐
산양(山羊)=사냥	산냥	산냥	갑연(甲宴)=가변	갑년	갑년
간유(肝油)=가뉴	간뉴	간뉴	잡용(雜用)=자봉	잡농	잡농
전연(全然)=저년	전년	전년	강유(剛柔)=강유	강뉴	강뉴
감영(監營)=가명	감녕	감녕	공일(空日)=공일	공닐	공닐
담임(擔任)=다밋	담닐	담닐	강연(講演)=강연	강년	강년
일인(日人)=이런	일린	일린	상약(相約)=상약	상냥	상냥
월요(月曜)=워료	월료	월료	정인(情人)=정인	정년	정년

二. 닿소리의 만나 바꾸임 (子音接變)

두 소리가 만날 때에 서로 影響을 주고 받아 바꾸이는 소리를 이룸이니, 그 갈래는 다음과 같다.

1. 센소리로 바꾸임 (激音化).

목청을 같고 나오는 숨 곳 「강」소리로 써 내는 破障音을 센소리라 한다. 그러므로 센소리 ㄱ, ㅋ, ㆁ은 ㄱ, ㅋ, ㆁ에 강소리가 섞인 것이다. 보기를 들면,

박힌다=바킨다.	각하(閣下)=가카,	종고=조코,	방게=다케,
벌힌다=버딘다,	달힌다=다딘다,	농다=노라,	빨다=빠라,
밭힌다=바판다,	십호(十戶)=시포,	얹밖=안팍,	송법=수편,
멋훈다=멋춘다,	맛훈다=마춘다,	딸자=따차,	많지=만치,

2. 코소리로 바꾸임 (鼻音化).

破障音(實際發音) 바침이 鼻音 첫소리로 된 音節을 만나면 그 破障音이 같은 자리의 코소리로 바꾸어 난다. 그 까닭은 코소리가 빠진 밖에는 條件이 다 같으므로 이제 코소리를 만나면 절로 그 코소리가 되는 것이니; ㄱ(代表音)은 ㅇ으로, ㄷ(代表音)은 ㄴ으로, ㅂ(代表音)은 ㅁ으로 變하여 난다. 보기를 들면,

먹는다=멍는다,	닭는다=당는다,	우녕놈=우녕놈,	한뭇농다=한뭇농다,
말느냐=반느냐,	말는다=만는다,	늦네=는네,	벗니=번니, 있는=인는,

밥먹고=밤먹고, 앞날=암날, 값났다=감났다, 없네=엄네.

3. ㄹ이 ㄴ으로 바꾸임.

ㄹ이 ㄱ口ㄹ口 밑에서 ㄴ으로 바꾸이는 것은 漢字語에만 있다。本來 조선 말에는 ㄹ 첫소리가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소리 ㄴ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보기를 들면,
백리(百里)=백니, 옥루(玉樓)=옥누, 삼라(森羅)=삼나, 감로(甘露)=감노,
압력(壓力)=압녀, 답례(答禮)=답네, 종로(鍾路)=종노, 정령(正領)=정녕.

4. ㄴ이 ㄹ로 바꾸임.

ㄴ이 ㄹ우에서나 밑에서 舌側音 ㄹ로 바꾸이니, 이것은 發音器官의 聯絡關係로 생긴 音便이다。보기를 들면,

만리(萬里)=말리, 환로(宦路)=할로, 볼노름=볼토름, 들나물=들라물,
살년(殺年)=살련.

三. 소리의 줄거나 죽어짐 (略音과 默音)

言語音節로 붙어 發音音節로 바꾸일 때에 흔히 音便을 좇아 소리가 줄기도 하고, 또는 죽어지기도 하되 제 音價를 그대로 保存치 아니하여도 程度를 從屬的 關係를 가진 토나 도음줄기 따위와 어울릴 때에 잇는 現狀이니, 그 갈래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母音이 포개지면 하나는 죽어 진다。보기를 들면,

가아서=가서, 사았다=사다, 서어서=서서, 서었다=섰다, 보오=보,
오오=오, 쓰오=쓰.

2. 一가 ㄱ우에서 죽어진다。보기를 들면,

뜨었다=떴다, 뜨어서=떠서, 쓰어도=써도, 쓰었다=썼다, 크어서=키서,
크었다=켰다. 트어야=러야, 트었다=렀다.

3. ㄱ이 밑에 오는 ㄴ로 시작 된 도음줄기나 ㄹ의 ㄱ은 죽어진다。보기를 들면,

개었다=갸다,	개어서=개서,	보내었다=보녜다,	보내어도=보내도,
대었다=뎌다,	대어라=대라,	매었다=멌다,	매어야=매야.
배었다=뵈다,	배어서=배서,	새었다=췌다,	새어도=새도,
재었다=궈다,	재어야=재야,	채었다=채다,	채어도=채도,
캐었다=궈다,	캐어라=캐라,	보래었다=보래다,	보래어서=보래서,
패었다=뵈다.	패어도=패도,	메었다=멌다,	메어야=메야,
베었다=뵈다,	베어서=베서,	세었다=췌다,	세어도=세도,
헤었다=헌다,	헤어서=헤서,		

4. ㄱ音이 母音 사이에서 죽어진다。보기를 들면.

달아서=다아서,	달았다=다았다	널어도=너어도,	널었다=너었다
놓아라=노아라,	놓아서=노아서	좋아서=조아서,	좋았다=조았다
많은=마는,	많아야=마나야	싫은=시른,	싫어서=시러서

5. 여러 子音이 한 때에 다 들어날 수가 없으므로 겹 바침이 그 아래 子音 첫소리로 된 音節을 만나면 그中에 하나는 들어나지 아니하되, 摩擦音이나 流音이 弱한 關係로

죽어진다。

(1). ㄱ ㄷ ㅂ의 ㅅ이 죽는 것, 보기를 들면,

샅도=삭도, 샅만=삭만	녘도=녁도, 녘만=녁만
툇도=뜰도, 툇만=뜰만	을도=을도, 을만=을만
값도=갑도, 값만=갑만	없다=업다, 없게=업게

(2). ㄹ ㄷ ㄹ의 ㄹ이 죽는 것, 보기를 들면,

닭국=닥국, 닭만=닥만, 닭도=닥도	밖다=박다, 밖지=박지, 밖고=박고
넙다=넙다, 넙게=넙게, 넙지=넙지	밟다=밥다, 밟고=밥고, 밟지=밥지
꿍다=꿍다, 꿍고=꿍고, 꿍지=꿍지	젊다=점다, 젊고=점고, 젊지=점지

6. 한 母音이 그 밑에 바로 오는 母音을 만나 複母音이나 半母音이 되어서 한 音節이 주는 것이니,

(1). ㄱ이 ㄱ을 만나서 變하는 것이니, 보기를 들면,

그러어서=그러서, 그러어라=그러라	말기어서=말겨서, 말기어라=말겨라
다니어도=다녀도, 다니어야=다녀야	디디어도=디더도, 디디어야=디더야
꾸미엇다=꾸뎃다, 꾸미어라=꾸뎃라	허비엇다=허뎃다, 허비어라=허뎃라
바치어서=바쳐서, 바치어도=바쳐도	뭉키어서=뭉겨서, 뭉키어도=뭉겨도
잡히엇지=잡헛지, 잡히어야=잡헛야	보이엇지=보헛지, 보이어라=보여라

(2). ㄴ나 ㄷ가 ㄴ나 ㄱ을 만나서 變하는 것이니, 보기를 들면,

보아라=봐라, 보아도=봐도	쓰아라=썩라, 쓰아도=썩도
오아서=와서, 오아야=와야	구어서=귀서, 구어라=귀라
두어서=뉘서, 두어라=뉘라	부어야=뉘야, 부엇다=뉘다
주어야=줘야, 주엇다=줬다	미루어도=미뤄도, 미루어라=미뤄라

四. 소리의 끊음 (絶音)

獨立한 品詞들이 모여서 綜合品詞가 되거나, 혹은 두 母音이 그냥 前後하여 잇달아 읽게 될 때에 各 品詞가 제 音價를 덜 變하려 하므로 앞에 소리가 濁音이면(모든 母音과 ㄱ, ㄴ, ㄷ, ㄹ) 그 소리를 갑자기 끊어서 그 소리가 다음 소리에 影響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絶音이라 한다. 내는 소리를 갑자기 끊는 때에는 子音終聲이면, 그 소리가 나는 자리를 힘써 막는 同時에 聲門(목청)을 막고 母音이면 聲門을 막는 同時에 또 便宜를 좇아 그 다음에 날 子音의 影響을 받아서 그 子音이 앞 母音의 바침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도 막아 끊게 된다. 이 絶音을 우리가 中間 ㅅ으로 써 적는다. 이 絶音 結果로 두 가지 發音變化가 생기게 되나니, 첫째는 絶音 뒤에 오는 받소리가 平音이면 그것이 된소리(硬音)처럼 나고, 둘째는 ㅅ ㅈ ㅊ ㅋ ㆁ 면 ㄹ바침 밑에는 그것을 닮아서 ㄹ蓋音化한 舌側音 ㄹ이 덜 나고, ㄹ바침 밖의 모든 바침 밑에는 ㄹ蓋音化한 ㄴ이 덜 나게 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우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絶音할 때에는 聲門을 막는다. 그러므로 숨을 통하지 못한 다음에 또 혀끝 狹窄音 ㅅ ㅈ ㅊ ㅋ ㆁ 音을 내려 하매 숨을 입으로 잘 通할 수가 없어서 코구멍을 열게 되는 것은 生理의 自然이다. 그런데 혀 位置가 ㄹ蓋音 ㄴ 내는 자

리에 있고, 또 ㄴ 낼 때와 같이 코구멍이 열렸으니, 口蓋音化한 ㄴ이 날 것은 必然한 일이다. 보기를 들면,

속잎=속뉘	떡옆=떡뉘	편웃=편웃	헌옆=헌뉘
담요=담노	밤일=밤닐	집옆=집뉘	합옆=합뉘
갓양=갓냥	웃입다=웃닙다	콩웃=콩웃	방옆=방뉘
젓유종=젓뉴종	낮일=낮닐	꽃입=꽃뉘	웃옆=웃뉘
부엌옆=부엌뉘			
밭이랑=밭니랑	걸일=걸닐	앞일=앞닐	숲옆=숲뉘
송엄소=송넙소			
물약=물략	볼옆=볼뉘	털요=털료	솔입=솔뉘
뒤스일=뒤닐	예스일=예닐	우스엌=우뉘	아래스엌=아랫뉘
고추스가루=고춧가루	내스내=낸내	갈비스대=갈뉘대	머리스말=머뉘말
가위스밥=가뉘밥	배스살=뱃살	벼루스집=벼뉘집	산스불=산뉘
손스독=손뉘	물스걸=물뉘	글스방=글뉘	갈림스길=갈뉘길
봄스바람=봄뉘바람	상스밥=상뉘	공스돈=공뉘	

이 우에 뉘런 바 實際 發音現狀을 觀察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發音되는 대로만 쓰자는 것이 아니다. 소리 나는 경우 그대로만 쓴다면 이것은 文字가 아니라, 萬國聲音記號와 같은 單純한 소리만 적은 符號에 지나지 아니한다. 文字란 것은 말의 소리를 적는 同時에 또 語源的이나 語法的 關係에서 생긴 뜻을 들보아 綴字法을 定하게 된다. 소리를 精密히 적으므로 語源이나 語法的의 統一性を 깨트리거나 語源이나 語法을 너무 重하게 여기므로 記寫된 소리가 音理的 說明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不合理한 것이다. 그러므로 合理的 綴字法은 表音과 表意가 서로 調和를 잃지 아니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俗 談 語 彙

【 2 】

가마 속에 있는 콩도 삶아야 먹는다.
 가막 까치 다 먹는다.
 가막 배자라.
 까막잡기 하는 셈이다.
 가문 덕에 대접 받는다.
 가물 끝은 잇어도 장마 끝은 없다.
 가물에 콩 나기다.
 가부간 안다.
 가부득 감부득이다.
 가손 오공이다.
 가슴에 목을 박는다.
 가슴에서 두 방망이질을 한다.
 가시밥 먹는 듯하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가위 늘러갸다.
 가위 사복을 지른다.
 가을 더위와 노인의 건강이다.
 가을 때는 부지마기도 덤병이다.
 가을 비는 장인 나뉘₃ 밑에서도 피한다.
 가을 아욱국은 계집 내어쫄고 먹는다.
 가을에 무 꾀지가 길면 겨울이 춥다.
 가을에 친 아비 제도 못 지내는데, 봄에 이부아비 제를 지내주라.
 가을 중 싸대뉘 한다.
 가을판에는 대부인 마뉘이 나막신뉘를 들고 나뉘다.
 가이동 가이서라.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오자니 송산이다.
 까짜틀 울린다.
 가장비 같다.
 가정삼년이다.

옛 적 글

吊 針 文

俞 氏 作

유 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첩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가운데, 중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 작은 물건이나 이러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치는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라, 아깝고 불상하다. 너를 얻어 손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 칠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러치 아니하리오. 슬프다, 눈물을 잠간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영결하노라.

연전에 우리 시삽촌께압서 동지상사락점(冬至上使落點)을 두르와 북경을 다녀 오신 후에 바늘 여러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도 보내고, 비복들도 삼삼이 날날이 나눠주고, 그중에 너를 택해야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드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히야 너이를 두수히 잃고, 부러트렸으되, 오즉너 하나를 연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상하며 또한 설설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하야,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종완하야 일즉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야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토하야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드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귀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아깝다, 바늘이어 어여쁘다, 바늘이어.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질을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철중의 쟁쟁이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

의 협객이요, 굳세고 끈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같은 부리는 말하는듯하고 두렷한 귀는 소리를 듣는듯한지라, 능라와 비단에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듯하니 어찌 인력에 밋을 바리오. 오호 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 놓일 때도 잊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름 때 잊나니, 너의 미묘한 기질이 나의 전후에 순옹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으로 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길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밥먹을 적 만져보며 잡잘 적 만져보고, 너로덕부러 벗이 되어, 여름날과 겨울 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글릴 때에 겹실을 꺾었으니 봉미를 두르는듯, 땀땀이 뜨어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슬슬이 부쳐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생에 백년동고하렷드니 오호 애재라, 바늘이어. 금년 지월 초십일 술시에 허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깃을 달다가 무심중간에 자관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어, 두동강이 나았고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야 마음을 떼어내는듯하며 두끝을 깨쳐내는듯히매, 이윽도록 기식혼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일없다.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내 장인에게 대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팔을 떼어낸듯 한다리를 떼어낸듯, 아깝다, 바늘이어 옷깃을 만져보니 꽃혔든 자리가 없네, 오호 통재라,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최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 사(伯仁由我而死)라, 누를 한하며 누를 원하리오. 능난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은 눈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재는 심회가 막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고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를 한가지로하기를 바라노라 오호 통재라.

사투리 調 査

〔行營, 穩城, 海州〕

咸北 行營 吳 世 濬

한글 第二號에 李常春先生님이 쓰신『북
관 사투리 몇』을 본즉, 羅南까지 오셨든
듯 합니다。그러기에 그중의 몇을 뽑아
썼습니다。行營은 會寧서 東으로 24k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150戶 가량 되는 農
村입니다。行營 사투리를 細密히 調查코
져 하였으나, 如意치 못하여 대강만 적었
으며, 生이 海州 出生이므로, 故鄉(海州邑
서 西으로 35km쯤 떨어져 있는 梨木市)
方言도 좀 썼습니다。

나는 간봄에 平壤師範을 마치고, 이곤
學校로 왔습니다。온 뒤부터 方言을 모으
고저하였으나, 研究力이 不足하여 여지껏
뜻과 같이는 못되었습니다。이곤 말 特徵
은 南道 말보다 알아듣기 쉽습니다。發音
이 明朗하며 액슨트가 높습니다。穩城 말
은 쏠혀 동무의 助力으로 적었습니다。錯
誤가 많으니, 貴會에서 推測하여 보시
기 바랍니다。

- (相議) 1. 한글 雜誌에 글자 誤植이 없도
록 하여 주십시오。
2. 한글에 對한 學務局의 意見과 諸學
者의 意見이 大端이 差가 있으니, 兒
童指導에 困難됩니다。어느 편을 좇
아야 좋겠습니까?
3. 先生이라고 教室에 들어가면 한글時
間만은 맘을 흘립니다。맘 안 흘릴
材料가 없을가요?
4. 한글 統一, 사진 편집도 急하지만 어
서 學校 訓導에게 한글을 普及시키시
고 指導의 要点을 알으켜 주십시오。

一. 行營 方言

朝卷五, 第二十五課 『分數모르는 도끼』
를 行營方言으로 바꿔 쓴 것。

도끼라는 놈이 하내— 제머레— 뽕이
없는거— 恨歎으했거덩, 사슴이르 찾아서
『사슴이님 오늘으는 當身께 請드릴 일 잇
여서, 일부러 왔습꾸마』 이려키 말으 했—
스소。 사슴이느 도끼말으 듣더니 『아—
니 무스 일이우? 들어보우。』 그랫—소。
도끼느 恭遜한 말느서 『나느 뽕이 한개두
없여서 恨이 돼우꾸마。 當身으느 뽕이 두
—리나 가지대넛습등, 그거 한개마 나르
주—디쇼』 해—스소。 사슴이느 도끼날으
뻐—디 보면서 『무스거 어때 뽕으 한나
— 달나구? 그래무 나느 어머라구。 그러
말으느 고퍼느 원가 하디 말구 어셔 가
우。』 그래—스소。 도끼느 사슴께—서 責
讓으 듣구 돌아가다가 옳다, 염쇠느 참
얍전하니 내 말만 하문 꼭 한개르 주러라
하구 또 염쇠르 차자가 보구 사슴께 하던
말과 같이 쳐—(請) 드렸습니。 염쇠느 도
끼 말으 듣구 머리르 흔들명서 『그거—느
千萬不幸한 말습이우。 모쳐름 읍섯예。 未
安하우마느 그런 말습으 하깃거경 다시느
오시디드 마우。』 해—스소。 도끼느 前에
—느 염쇠르 얍전하디구 찾아갔다가 無顏
으 當하구 또 다시 생각하기르 황쇠느 크
기두하구 점대니니 남에— 事져—(情) 알
아주러라 하구 이내 황쇠게 가서 또 事져
—에스말으 해—스소。 황쇠느 웃으명 對
答으 하기르 『天下萬物이 제各其 타구나
은 分쉬(數) 잇는데 너느 分數밖에 慾心
으 내니 네같은놈이게 거져보내디 못하깃
다。』 하구 대비 뽕으 박자구 해—스소。
도끼느 배킬가—바 怯이 나서 되— 말아
나느데 그때— 벌셔 달이 中天에 올라와
서 밤이 낮과 같이 밝앗소。 도끼 偶然히

제 그림자르 보니 제머레— 두 귀 길기
 먼더데서 거저 뿔이 난것더름 배웠소. 옴
 다: 옴나 나느 뿔이 없는 대신에 이리케
 혼릉한 귀르 가졌구나 남에— 뿔으 慾心
 으 내—서 무시—르 해겿나 하구 절느 기
 뿌해—서 긴 귀르 쫓긋거리구서 한참 뵈
 면서 도와해—스소.

穩城사람에게 冊대로 대강 이야기 시키
 면 上記와 같이 말 發音하리라 합니다.

上記中 뜻이 통하지 않는 끝이 잇을는
 지 모르나 대강 썼으니 誤點도 많을줄 믿
 습니다.

여기 쓰인 穩城은 咸北 穩城郡廳 所在
 地。

二. 穩城 方言

대개 平壤사람의 發音과 비슷함. 더욱
 이 運動場이란 말의 發音은 平壤사람과
 똑 같음.

1. 「자, 저, 조, 주, 지」는 「다, 더, 도, 두,
 디」로 發音함.

例: 운동당(運動場—운동장—운동장)

대더(大底—대저—대저)

도(兆—조—조)

동심(中心—중심—중심)

디방(地方—지방)

2. 「자, 저, 조, 주」는 「차, 저, 조, 주」로
 發音함.

例: 저고리(上衣—저고리)

3. 「사, 서, 소, 수」는 「샤, 셔, 쇼, 슈」로
 發音함.

例: 샤례(謝禮—샤례)

경찰서(警察署—경찰서)

풍속(風俗—풍속)

슈령(首領—수령)

항상(恒常—항상)

4. 「외」를 「워」와 「왜」로 發音함.

例: 경워(敬畏—경외)

워국(外國—외국)

왜가(外家—외가)

5. 「가」를 「개」로 發音함.

例: 와개(瓦家—외가)

6. 「최」를 「채」로 發音함.

例: 채창국(崔昌國—최창국)

7. 「화, 오」를 「왜」로 發音함.

例: 리성왜(李成化—이성화)

김성왜(金聖五—김성오)

8. 「화, 회」를 「화」로 發音함.

例: 리화칠(李化七—이화칠)

청년화(青年會—청년회)

9. 「로, 노」를 「노」로 發音함.

例: 김성노(金聖魯—김성로—김성노)

10. 「우」를 「외」로 發音함. (이것은 比較
 的 적다.)

例: 외인(愚人—우인)

11. 「조, 주」를 「죄, 쥐」로 發音함.

例: 제죄(製造—제조)

디쥐(地主—지주)

12. 「교」를 「쥬」로 發音함.

例: 쥬의(교의)

쇠, 쇠(牛, 소)

펜지(片紙, 편지)

화리(火爐, 화로)

붓퇴—(筆桶, 붓통)

도시(도수)

부디(筆, 붓)

넨넨히(年年히, 연년히)

약백이(洋服, 양복)

하이칼리(하이칼라)

퇴지(도야지, 돼지)

결(寺, 절)

일본(日本, 일본)

농덩(龍井, 용정)

복숭애, 복슈애(桃子, 복숭아)

청둥(靑銅, 청동)

엔필(鉛筆, 연필)

감재, 감지(甘藷, 감자)
 학생매(學生帽, 학생모)
 지구(地球, 지구)
 면사미취(面事務所, 면사무소)
 베리스돌(硯, 베투)
 환-中國語의 환-(舟, 배)
 잇소꼬마, 이스꾸마(잇습니다)
 비지깨-露國語傳來-(燐寸, 성냥)
 잇슴둥, 잇슴둥(잇습니까)
 홀 갓으꾸마(그만갓습니다)
 마우재-中國語 모-즈-(露西亞)
 왕계, 영계(此處, 여기)
 오번(今番, 이번)
 남물(野菜, 나물)
 구렁물(井水, 우물)
 개-지(犬子, 강아지)
 쇠-지(犢, 송아지)
 물(村里, 말)
 팔(腕, 팔)
 함(土, 흙)
 보름(風, 바람)
 쫓(赤豆, 팥)
 화차, 부술기(汽車, 기차)
 광등(Lamp, 램프)
 큰아매(祖母, 할머니)
 구쥬, 구쥬(洋靴, 구두)
 아배, 아반이(父, 아버지)
 제-미, 아매(母, 어머니)
 누배, 누배(姉, 누님)
 누배, 누배(蚤, 누에)
 동애(南瓜, 호박)
 단취(紐, 단추)
 비센이(襪, 보신)
 누까-리(眼, 눈)
 배재(籬, 울타리)
 토창(土牆, 토담)
 원지, 쥬해, 원각, 원영, 원판 (본래, 원래)
 슈끼(玉蜀黍, 옥수수)
 편더꽃(杜鵑花, 진달래꽃)

바리(麥, 보리)
 일기(狼, 이리, 승냥이)
 초마-재 핑거디
 (麥藁帽, 맥교자)
 늪, 사득(池, 못)
 머저러, 멍신(愚人, 천치)
 냉기(木, 나무)
 쇠-미(수염)
 그라-네와(그렇습니다)
 일보, 일어보, 이보(여보, 이거보)
 자잉교(自轉車, 자전거)
 술기(車, 수레)
 병새-리(瓶, 병)
 뱃두다(빛두다)
 하-리쇼(하십시오)
 어물히다, 맹랑히다(어긋하다)
 알냐-합쇼(안녕하십니까)
 집안이무서하-리쇼, 집안이무서하-리쇼
 (집안이무고, 하십니까)
 물갈이, 물색이(물감, 染料)
 노로리, 늙으덴이(老人, 노인)
 명실(名節, 명절)
 단이(端午, 단오)
 살쩍이(櫛, 빗)
 깨-미(가얏)
 세, 셋되-, 셋데-(舌, 혀)
 쾌성(浬, 쾌)
 상취, 상태기(상투)
 배-지(박아지)
 버러, 벌기(벼레)
 보비(寶, 보배, 보패)
 놀명(천천이)
 가슬기, 목필(숯)
 장판(마루)
 마감, 마감, 막개(마지막)
 읍부다, 읍부-히다(웃는다)
 당나무, 당냉기(굵은나무)
 부숫막, 정지(부엌)
 우리집(男便, 남편)

애씩하다(싫다)
 석재(薺, 뜻)
 새(鳥, 새)
 알괘-준다, 가르치와준다, 갈치와준다,
 (가르쳐준다)
 팡주리, 팡지(바구니)
 비늘(비누)
 픽은하다, 무두-기하다(많다)
 거러마니(호주머니)
 주재(橘, 귤)
 후-재, 호-재(馬賊, 強盜, 도적)
 쥘제(떡국)
 면후-재(우동)
 밤치(밤망이)
 망치(마치)
 벉금, 보금(다음)
 가루르-하다, 가루-하다(갈다)
 여상하다(如斯하다)
 선생, 선승(先生, 선생)
 비렁거레-, 비레-(乞人, 거지)
 제(당신)
 왜(오이)
 그리합지비(그리합시오)
 벌도(外套, 외투)
 커우대, 후대(布袋, 자루)
 더팡살이, 다팡(小作生活)
 광챙위 錘, 샷)
 팍지, 팍지, 팍재-(광이)
 무스패, 무시재, 미시게(무엇)
 덕수리, 덕수리(鳶, 솔개)
 여끼, 여스(狐, 여호)
 홀롱재(雜貨行商)
 측간판장(뒤스간)
 추접다, 추비하다(덕럽다)
 아즈바니, 아즈배, 아주버니(叔父, 작은
 아버지)
 모구락지, 머구락지(蛙, 개고리)
 늘상, 노상, 평성(恒常, 항상)
 보구(於, 보다)

네펨네-(妻, 안해)
 궁재, 경재(거기)
 추물이다(不好, 좋지못하다)
 레보-재(돈주머니)
 댜련하다, 로명하다, 로명밧다, 댜명하
 다, 댜명밧다(미련하다)
 정심(晝食, 점심)
 뉘-진다(죽는다)
 녀-니, 새-기(애기)
 선선아, 선선아이(男子, 사내)
 번렴, 보렴, 본송(贈物, 선물)
 며거리(짚신)
 동말, 똥말(下駄, 케타)
 허불에-미, 파택이(홀어미)
 하불아비, 보로터(홀아비)
 밤우리(병아리)
 업부러진다(자빠진다)
 두러-시(두루마기)
 곰추-나(술는다)
 달렁호(富者집)
 풍숙(洞里, 동리)
 갈기(粉末, 가루)
 동짱, 동짱(東方, 동쪽)
 배-치(兄弟, 형제)
 당나귀, 당나구재-, 나구재-(나귀)
 베리기(벼룩)
 다워르한다, 도이로한다(漆한다, 칠한다)
 배(布, 베)
 돼놈, 돼슴아, 얼돼놈, 돼국놈, 대놈(胡
 人)
 드비(豆腐, 두부)
 원슈, 헬수(怨讎, 원수)
 자부랍다, 자부럼이온다(眠, 졸렵다)
 누르말다(成功하다)
 시스쇄(時計)
 쇠(鐵, 쇠)
 아적(朝, 아침)
 가채-기, 아채기, 아치, 아치(枝, 가지)
 그느지(陰, 그늘)

도락지르한다(돌아단진다)
 노질이(종달새)
 우리(衣服, 옷)
 히분자, 하분라, 한자(혼자)
 불세-르(별안간)
 날과다가(날리다가)
 그러거-보구(그런것을보고)
 저녁, 저낙(夕, 저녁)
 애끼(弟, 아우)
 도삽(거짓말)
 해-사(해서, 하여서)
 셋경(鏡, 거울)
 딸군다, 딸군다(좃는다)
 겨울(冬, 겨울)
 가을(秋, 가을)
 삭패(帽子)
 놀이(獐, 노루)
 라방(組合, 조합)
 패꿀(괴꿀)
 더비(더위)
 먹자구, 채우자구(먹으라고)
 먼저(만저)
 그래-두(그러나)
 한나, 한내(一, 하나)
 두-리(二, 둘)
 세-셋(三, 셋)
 다섯, 다호(五, 다섯)
 여스, 여호(六, 여섯)
 일구(七, 일곱)
 야드, 야들, 야동(八, 여덟)
 아우, 아홉(九, 아홉)
 열, 열(十, 열)
 注意. ()안에 잇는 말은 서울말。

三. 方言의 比較

(京 語)	(海 州)	(行 營)	(京 語)	(海 州)	(行 營)
두부	두부	드부, 드포, 드비	수수	수수, 쉬수	밥수수
감병이	감내미	옥숙기, 담키, 감내이	보쟁기	보쟁기, 연쟁	가대기
			가래	가래	항가래
			반찬, 선거너	반찬	햄, 남물
			나무토막	나무토막	나무토막, 나무두둑
			굴뚝	굴뚝,	구름, 구서
			아레목	아름목, 아랫목	아랫목, 발취
			부뚜막	비뚜막	부석너매, 언덤
			부엌	부엌	부수개, 부엌
			솔뚜껍	소등개, 두영개	가마뚝배
			인두	인두	운뒤
			다리미	대리미, 다리미	대련
			다님	다님, 갓님, 꼬매기	바뚝매기, 오구마기
			허리띠	허리띠, 팔띠	바리띠
			홍두깨	홍두깨	다듬때
			괘(纜)	괘	괴낫
			늬은이 { 女 { 할마이(婆專稱) 할미(할마이보다비중)	{ 할마이(婆專稱) 할미(할마이보다비중)	마매
		{ 男 { 영감[元來는敬稱이 나卑稱으로 쓴다] 철지(極卑稱)			
			눈	눈, 뉘갈(卑稱)	늬은이
			리지	리지	안질(敬稱)
			두루마기(夏周衣)		드리
			두루마기(冬周衣)		두리매기, 창웃
			거스름돈	치개	두로매기, 저막
			내(煙)	연기, 내	승천
			올타리	마주, 올타리	영기, 배굴
			담	담, 단정	바저, 올타리
			행주	행주	뒸
			떠리	떠리	생지
			방앗공이	방이괘이	따바리
			방아확	방아확	방아괘이
			삼(麻)	삼	호박이
			병이	내이	쌈
			소로장이	소리저이	나시
			木枕	목침, 토막	소로지
			바다	바다	목독기
			바다물	바닷물	바다
			버릇집	버릇집	바닷물
			놀이(霞)	놀이	쟁벼루
			총각	총각	느블
			색시	취녀, 평발이	선스나
			개고리	개고리, 먹저귀	새막기' 취녀
			끼너(진지)	저녁(夕飯)아침(朝飯)서저	머그락지, 머거비
			오늘저녁	오늘저녁	오나조(今夜)
			병	병	병새리
			잠꼬대	잠꼬대	잠말, 잠꼬대

호박	호박	등애
미치팡이	미치패이	쌀쓰개
밤참	밤참	중세, 중참

담	짚짚—짚짚	고고—고고고고, 고—고—고—, 구구—구구구구
---	-------	--------------------------------

고양이 오네—오네 오네— 애—내 애내애내
 깨 워—리 워리워리, 고도고도 워—리 워리워리
 사냥스개 푹호호호호, 휘쿠후후후 워허이 워허이
 후

四. 짐생 부르는 소리

(穩城地方)

(海州地方)

도아지 쯔—근 쯔쯔쯔, 쯔쯔

오래—오래오래

質 疑 欄

【물음】 (1) 崔鉉培 先生 지으신 우리말 본소리 같 一頁 十八行에 「글자이다」, 同 四頁 十一行에 「부하(肺)이다」, 東亞日報 지난달(三月) 二十八日 附 號外 社說 一節 끝줄에 「將來如何의 두가지이다」를 「글자다」「부하다」「두가지다」로 아니 쓴 까닭을 들려 주시오. 愚見으로는 終結詞 助辭 辭確定辭 「다」는 母音으로 終한 名詞에, 「이다」는 子音으로 終한 名詞아래 쓰히지 않습니까?

(2) 上記의 語句 「두가지」를 數詞로 잡는 것이 어떨까요?

(3) 「우리말본」 第二卷은 언제나 보게 될까요?

(4) 朝鮮語學會서 開城가서 討論한 한 글은 언제나 世上에 發表될까요?

(咸北 吳世濟)

【대답】 (1) 그것은 말슴과 같이 「글자다」「부하다」「두가지다」로 써도 좋습니다. 그것을 받드시 「글자이다」「부하이다」「두가지이다」로 적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외다. 一般으로 보건대 무슨 말이든 지 줄어진 것은 그 줄어진 대로 적을 수 있음은 世界 各國語에서 共通한 言語記述의 事實이외다. 이 경우도 亦是 말이 줄어진 것이외다. 곧 「이다」가 根本形인데 그것이 홀소리알에서 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어진 대로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이가 일부러 文語格으로 그것을 줄이지 아니하고자 할 적에는 줄이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普通으로 日常會話에서는 줄이는 말이라도 글로 적을 적에는 줄이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습니까. — 이와 같이 「이다」를 잡음

씨(指定詞)라 하여 一種의 品詞 곧 풀이씨(用言)로 잡고, 그 줄기(語幹)가 주는 일이 있음을 認함은 나의 根本的 文法的 主張외다.

이 主張의 根據와 異說을 批評함은 여기 質疑에 對한 대답의 形式으로 하기에는 넘어 多端한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은 뒷날에 다시 한 論을 發表할 機會가 있기를 바라니까 여기에서는 다만 그 要旨만을 들면 이리합니다.

(7) 「이다」는 古來로 우리말에 쓰히는 한 풀이씨(用言)이며, 또 글에도 적어 오던 것이다.

(2) 近世人은 東西洋을 勿論하고 말을 簡便히 하고자 하여서 말소리를 줄이는 일이 많다. 그리하여 「이다」의 줄기 「이」가 홀소리 알에서 주는 일이 많다. 그렇지마는 홀소리 알에서는 줄일수 없는 줄이지않는 경우가 아즉도 있다.

(7) 오늘의 조선말의 법을 眞正한 言語事實에 基하며 그 本質에 因하여 說明하고자 할진대 「이다」를 一種의 풀이씨(用言)로 잡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2) 따라서 「다」를 終結辭(곳, 맺)로 보고서 「이다」의 「이」는 그저 調音作用을 하는 附屬的 部分으로 보는 것은 저는 贊同할 수 없습니다. — 仔細한 發음을 들일 餘裕가 없사와 이렇게만 말슴 하옵고 뒷 機會를 기다려오니 恕察하시기를 바랍니다.

(2) 「두가지」의 「두」는 어떤씨, 「가지」는 이틀씨로 봅니다. 「두가지」를 한 數詞로 보는 것도 說明이 可能합니다. 곧 이렇게 하는 說에서는 「一斗, 二斗, 三斗..., 四升, 五升, 六升,」의 따위가 다 一個의 낱말이 되고, 그 「斗, 升,」 따위는

助數詞라는 一種의 接尾語(말가지)로 보게 됩니다。日本文法家中에는 이렇게 푸는 이가 많습니다。그러나 저는 이說에 贊同하지 아니합니다。「한 사람, 두 사람, 한 집, 두 집, 한 해, 두 해」의 「사람, 집, 해」과 앞에 든 「말, 되」같은 것들을 한 接尾語로 봄이 不當한 줄로 생각됩니다。

(3) 저의 「우리말본」 들재매는 아즉도 짓는 中에 잇습니다。속히 끝나면 明年

봄에는 世上에 나올 듯합니다。

(4) 우리 朝鮮語學會에서 開城가서 討論한 것은 우리 한글의 綴字法 統一案이 온데, 그 때에 一讀會는 다 하엿습니다마는 그 때에 小委員으로 뽑힌 사람들이 더 研究하는 中이오니, 그 研究整理가 끝나면 다시 한번 大委員會를 열어서 討議하여야 하겟습니다。今年內로나 發表하게 될는지요。(1933, 5, 22. 崔鉉培)

本會記事

一. 定期總會

1933年 4月 8日 下午 三時半에 水標町 42番地 本會館에서 第十三回 定期總會를 幹事長 申明均氏 司會로 열고, 庶務의 前會 會錄 朗讀과 一年 經過 報告가 잇은 뒤에, 會計의 會計 報告가 잇어 다 그냥 通過되고, 그 다음에 幹事를 가니, 幹事長에 崔鉉培씨, 庶務에 李克魯씨, 會計에 申明均씨가 뽑히다。

二. 月例會

1933年 5月 13日 下午 4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金善琪씨의 「漢字語의 ㄹ音 問題에 對하여」 講演이 잇은 뒤에, 朝鮮語學會 文庫를 作만하기로 議論하여 작성하다。

1933年 6月 10日 下午 4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崔鉉培씨의 「움직씨의 시김과 입음(動詞의

使役과 被動)」에 對한 講演이 있다。

三. 朝鮮語綴字統一案 修整委員會

1933年 5月 16日 下午 8時로 全 10時半까지 弼雲洞 金善琪님 집에서 第一回 會議를,

1933年 5月 20日 下午 3時로 全 十一時까지 水標町 本會館에서 第八回 會議를,

1933年 5月 23日 下午 8-11時에 金善琪님 집에서 第九回 會議를,

1933年 5月 27日 下午 4-7時에 本會館에서 第十回 會議를,

1933年 5月 30日 下午 8-11時에 金善琪님 집에서 第十一回 會議를,

1933年 6月 6日 下午 8-10時에 金善琪님 집에서 第十二回 會議를, (累計 十二回 四十四時間半)

四. 朝鮮語綴字統一案 修整小委員會

1933年 5月 9日 下午 3-

6時에 第六回를 本會館에서 열다。

(累計 六回 二十二時間)

五. 新入會員

1933年 4月 8日에 許永鎬氏가 入會하시다。

1933年 4月 21日에 張性均氏가 入會하시다。

會員動靜

李常春氏 去 四月一日 元山 樓氏 女子高等普通學校로 轉任。李康來氏 開城 松都高等普通學校로 轉任。

昭和八年 七月 卅一日 印刷
昭和八年 八月 四日 發行
「한글」 第九號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個年 一圓六十錢

京城府 水標町 四二
編輯兼 發行人 申 明 均
京城府 安國洞 一三五
印刷者 李 炳 華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印刷所 中央 印刷 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所 朝鮮語學會
電話(光)一三九九番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總販賣所 中央印書館
電話(光)二五九五番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書留料 十六錢
送

內容 { 先生傳記
(朝鮮) 語音學
(朝鮮) 語文法
말 의 소 리

이 冊은 上記와 같이 先生의 傳記와 著書를 한테 모은 것이
을시다。國定教科書로부터 其他 書籍, 新聞, 雜誌 할것없이 모
두 한글로 改正되어 우리 言文도 차차 바른 길로 잡혀가는 今
일에, 우리는 새삼스러이 周時經 先生을 感慕하고 記念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이 한글을 科學的으로 研究해서 바른 方法을
우리에게 指示한 이는 周時經 先生이을시다。今日 한글에 對해
서 무어라고 말하든지, 그 根本은 모두 周先生으로부터 發한 것
이을시다。그러므로 한글의 查된 意義의 方法을 알려면 先生의
著書를 읽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한글歷代選

定價 一圓
書留料 十六錢
送

內容 { (一)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二) 月印千江之曲
(三) 杜詩諺解 (四) 訓蒙字會 (五) 松江歌辭
(六) 四書諺解, 小學諺解 (七) 創世紀

이 冊은 上記 諸書를 한테 모은 것인데, 一一이 믿음직한 原
本을 求하여, 꼭 그대로 翻印한 것이을시다。얼마나 稀貴한 珍
書입니까 우리 文學과 語學의 研究에 뜻 있고 또 한글 沿革을
알고저하신 이는 勿論이요, 其他 누구든지 한번 읽고 또 永遠
히 간수하지 아니치 못할 民族的 國寶외다。

發行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七八

中央印書館

昭和八年八月四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